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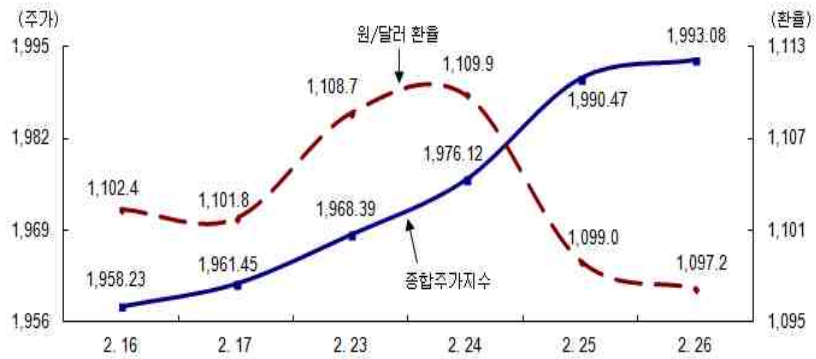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중국, 2015년 양회(兩會)후 경제 향방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6~2.26)

 현대경제연구원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중국, 2015년 양회(兩會)후 경제 향방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5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경제연구본부 :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 용 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이 용 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Executive Summary

□ 중국, 2015년 양회(兩會)후 경제 향방

■ 2015년 양회(兩會), 중국판 뉴노멀'의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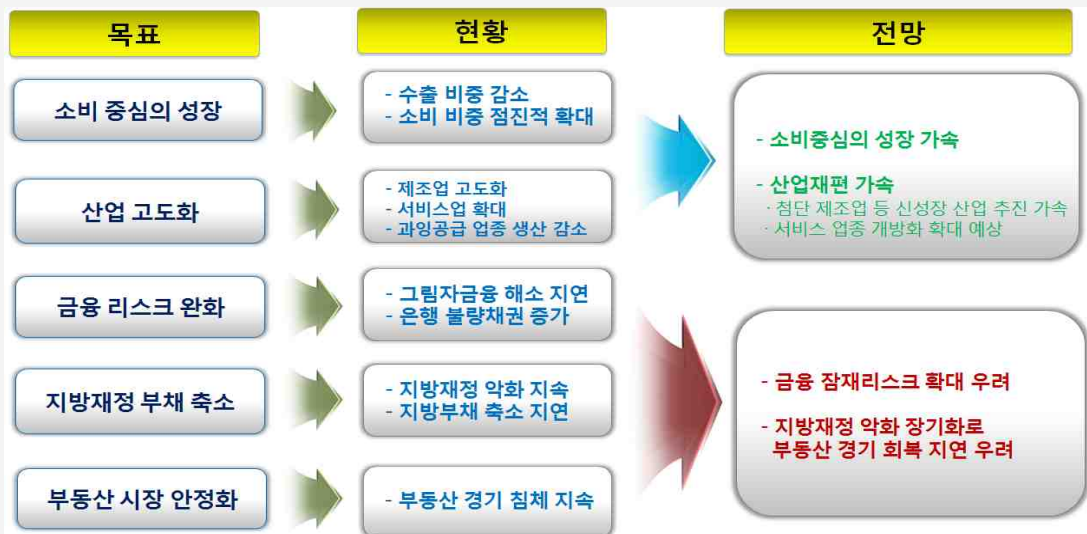
올해 3월초부터 시작되는 중국 양회(兩會)는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 및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등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이벤트이다. 2015년 양회에서는 시진핑 정부의 구조개혁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판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을 정의하고 대응정책을 출시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이번 양회를 계기로 구조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성과 및 향방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까지의 중국 구조개혁 성과를 짚어보고 양회이후 중국 경제의 중점 개혁방향을 소비, 산업고도화, 금융리스크,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시장 등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소비 중심의 성장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최종소비 비중은 2000~2010년 사이 지속 하락하다가 2011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50% 초반대 수준에 머무르고는 있지만 예상보다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도시화 가속,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관련 정책들을 통해 내수확대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금융, 의료,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유무역시범지구를 확대 개발하는 등을 통해 고용확대 등 내수부양 여건 조성 노력을 가하고 있다. **둘째, 산업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000년 32.1%에서 2011년 34.2%로 소폭 향상된 가운데, 제조업 중에서도 특히 중고기술(Medium/High Technology)의 수출비중이 2000년 45.3%에서 2011년 59.0%로 대폭 증가하였다. 서비스 산업도 2013년부터 GDP 대비 비중이 제조업을 추월하는 등 3차산업 중심의 산업재편이 가속되는 모습이다. 더욱이 최근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구조개혁 강화로 2013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판유리 등 과잉 설비투자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신에너지 산업 등 신흥산업 육성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저탄소 기술 분야 지원 등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육성정책도 실행하고 있다. **셋째,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여전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2014년 현재 중국 GDP의 약 46%인 29조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2013년 8월과 2014년 초 단행한 금융 규제 등으로 2014년 12월까지 신탁투자 관련 프로젝트의 누적 규모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등 그림자 금융 규모 축소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2014년 4/4분기 1.25%로 12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을뿐 아니라 기업대출 중 소형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30%를 하회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방재정 부채의 해소가 지연되고 있다.** 2000~2013년 사이 중국 중앙정부재정 흑자폭이 연평균 28.8%씩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정부재정은 동기간 적자폭이 연평균 21.7%씩 증가했다. IMF(2014)는 중국의 지방부채가 2015년에 GDP의 42.2%인 약 3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융자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지

방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 자금조달 수단 제한 등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부동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주요 100대 도시의 평균주택가격은 2015년 1월 현재 10,564위안/평방미터로 2014년 4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주거용 주택의 착공 및 판매 면적 증가율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예대금리를 인하하는 등 금융통화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2014년 9월부터 주택구매 제한, 주택공적금 등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면서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착수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중국 경제는 소비확대 정책 지속, 과잉 공급 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구조개혁이 가속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장기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은행부실 우려 확대,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잠재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성장 회복 지연이 예상된다.

< 양회 이후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전망.

■ 시사점

올해 중국 양회의 정책기조를 볼 때, 향후 중국경제의 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기회요인은 활용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리스크 확대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구조조정으로 향상될 중국 시장의 변화에 겨냥한 對중국 수출전략 마련 필요성이 있다. **둘째,** 내수시장의 질적 확대에 따른 對중국 투자 환경에 대비해 새로운 투자 전략 마련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성장둔화에도 대비한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화 해외 활로 개척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금융 췌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지속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돌발 리스크 발생에 따라 국내 중국계 자본의 대규모 유출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1. 2015년 양회(兩會), 중국판 '뉴노멀'의 개막

- 시진핑 정부는 2015년 양회(兩會)를 통해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을 중국 경제의 경제정책기조로 채택하고 올해는 '성장보다는 개혁'에 중점을 둘 전망
 -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 및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등을 일컫는 양회는 매년 3월 초부터 약 2주간 베이징(北京)에서 개최
 - 중국 정치협상의 주요 기구이자 국가 정책자문기구 성격을 가지는 올해의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2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3월 3일 개최 예정
 -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으로, 법제, 인사 및 예산심의 등을 결정하는 전국인민 대표대회는 3월 5일부터 개최
 - 시진핑 정부의 구조개혁의 정책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15년 양회에서는 '중국판 뉴노멀'을 정의하고 대응정책을 출시할 전망
 -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¹⁾에서는 안정속 발전(穩中求進)속에서 뉴노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판 뉴노멀'은 주로 경제의 중성장, 구조변화, 성장동력 전환, 대내외 리스크(불확실성) 확대 등 특징으로 나타남
 - 이번 양회에서는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성과를 정리·평가하고, 뉴노멀을 기조로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의 정책적 방향성을 확정할 예정
 - 앞서 지방정부도 지방양회를 개최(2015.1~2월)하여 경제성장을 하향 조정, 지방정부기업 개혁 등 뉴노멀 기조에 맞는 정책적 방향 제시
 - 지난 2014년 중국의 31개 지방정부가 모두 성장률 목표를 미달한 가운데, 올해는 베이징(北京) 등 29곳이 경제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
 - 더불어, 시진핑 정부의 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경제특구 개발, 자유무역지구 설립 추진 등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성장동력을 확보할 예정
 - 또한, 지방정부 경제구조개혁과 더불어 지방정부기업 개혁, 부패척결, 에너지절감 등에도 속도를 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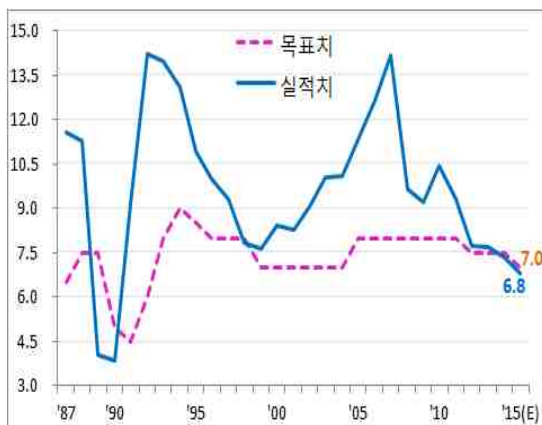
1)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의 당·정 최고지도층과 상·사·자치구 대표, 국가기관·중앙직속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 등이 참석하는 연례 회의로 매년 12월에 개최되며, 당해 연도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경제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차년도 양회의 정책토론 참고자료 역할을 함.

○ 더욱이,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이번 양회를 계기로 구조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

- 2014년 중국경제는 내외수 경기 약화 지속으로 성장목표치 7.5% 달성에 실패
 -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4년 12.0% 증가에 그치며, 2010년 18.4%이후 4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고정자산투자도 동시점 15.7% 증가하며 2009년 30.5% 이후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임
 - 수출은 동기준 4.9%로 2012년부터 한 자릿수 증가에 머무는 등 외수경기 둔화세가 지속
 - 이에 따라, 2014년 중국경제는 7.4% 성장에 그치며, 당초 중국정부의 목표치 7.5% 달성에 실패

- 2015년에는 경기 하방압력 가중 등 경기 둔화로 성장목표를 7%로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양회 후 구조개혁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됨
 - IMF(2015)와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중국경제가 6.8%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 중국사회과학원(2014)도 7.0%로 전망²⁾
 - 한편,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기 하방압력 가중, 경제 구조개혁의 난항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12차 5개년 계획(2011~2015) 마지막 해인만큼 올해 구조개혁이 더욱 가속될 전망

< 중국의 경제성장 목표와 실적치 > (%)



자료 : 중국정부의 역대업무보고서, CEIC.
 주 : 2015년 성장률은 IMF 전망치, 정부목표는 예상치.

< 2015년 중국경제의 중점개혁 방향 >

구분	중점개혁 방향	정책 방향
성장 방식	① 소비 중심의 성장	- 소비 촉진 정책 다양화
산업 재편	② 친환경 산업 재편 가속, 과잉공급 업종 제약	- 고부가 제조 및 서비스업 육성 - 민자 참여 확대
경제 리스크	③ 금융권 부실 관리 ④ 지방재정 개선 ⑤ 부동산 경기 회복	- 금융 개방 속, 감독 강화 - 부동산 규제 완화

자료 : 中國中央政府門戶網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2) 2015년 중국경제의 성장목표도 7.0% 좌우로 하향될 가능성이 높아짐. 前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린이푸 박사는 2015년 중국경제의 성장목표치를 7.0~7.5%로 전망,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등 주요 IB들은 7.5% → 7.0%로 하향 조정을 예상.

2.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방향 및 전망

① 소비 중심의 성장 : 점진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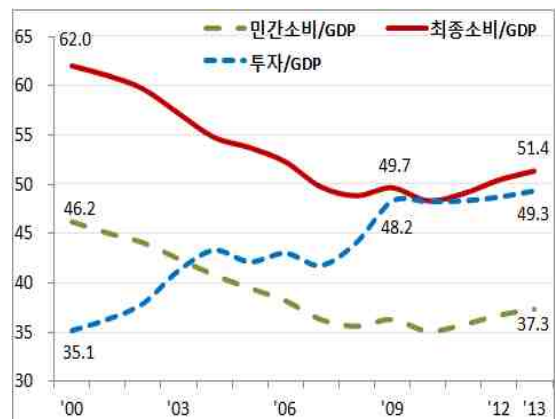
○ 중국경제는 수출이 지속 약화되는 가운데, 소비 중심의 성장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

- 중국경제는 GDP 대비 수출 비중이 2011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 수출총액/GDP는 2007년 34.8%로 정점을 찍은 후, 우하향 추세가 지속되면서 2013년 23.3%로 2000년 초반대 수준으로 감소
- 한편 소비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
 - GDP 대비 최종소비 비중은 2000년 62.0%에서 2010년 48.3%로 지속 하락하다가 2011년부터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50% 초반대 수준
 - 투자 비중은 2000년 35.1%에서 2009년 48.2%로 지속 상승하다 2010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냄
 - 한편, 중국정부 기관이 전망한 2015년 GDP 대비 소비 및 투자 비중 56%, 42%에는 못 이를 것으로 예상³⁾

< 중국 수출총액/GDP 추이 >
(십억달러) (%)



<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및 투자 비중 추이 >
(%)



자료 : IMF,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소비와 투자는 국민계정상, 수출은 실물지표 인용.

3) World Bank와 중국 國務院發展研究中心(DRC)이 2013년 공동 발간한 "China 2030"에서 2015년까지 중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늘고 투자는 감소할 거라고 전망.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도시화 가속,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관련 정책들을 통해 내수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는 미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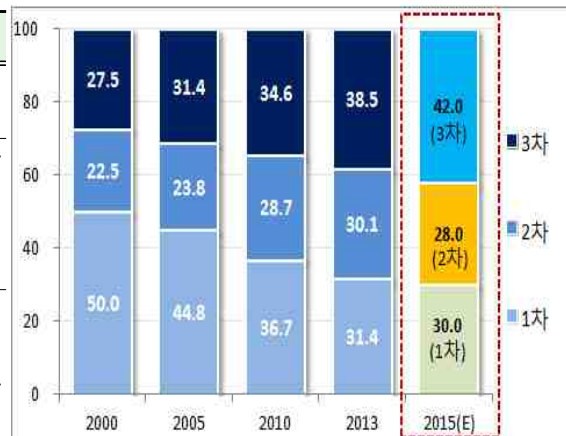
- 최저임금 상향, 도시화 가속, 호구제 수정 등 중장기적인 내수확대 플랜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는 미약
 - 최저임금 상향등으로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과 도시 1인당 소비지출이 2011~2014년까지 각각 연평균 9.8%, 9.6%씩 성장했으며, 한계소비성향도 2010년 0.62에서 2014년 0.82로 소비확대 여력이 지속 증가
 - 하지만, 2014년 중국의 평균 도시화율은 54.8%로 2015년 목표치 51.5%를 초과했으나, 약 2억 7,400만 명에 이르는 농민공을 제외하면 약 35%에 불과
 -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농업과 비농업 호구를 구분하는 現 호구제를 신형호구 제도로 수정 정책이 시행할 계획
- 한편,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확대 등 새로운 내수 확대 여건 조성이 가속
 - 금융, 의료, 물류 등 고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2013년 시범적으로 시작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광둥, 푸젠, 텐진 등으로 확장할 계획
 - 최근 중국 서비스업의 전체 산업별 고용비중은 2000년 27.5%에서 2013년 38.5%로 빠르게 상승
 - 중국 국무원연구중심(2013)에 따르면, 2015년 1,2차 산업 비중은 각각 30.0%, 28.0%로 감소하는 한편 3차 산업은 42.0% 확대를 전망

< 최근 중국 내수확대 정책 >

구분	정책내용
소득 향상	- 최저임금 13%씩 상향 (2011~2015년까지)
도시화 확대	- 농촌인구 1억 명에게 도시호구 부여 계획('20년까지) · 거주증제도 전면실시('15년 예정) · 단독 두자녀 정책 시행('14.3)
서비스업 규제 완화	- 금융, 의료, 물류 등 서비스업 규제 완화('13.9) · 상해외에 광둥, 푸젠, 텐진 등 자유무역구 설립 확대('15년 예정)

< 중국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 >

(%)



자료 : 국무원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주 : 2015(E)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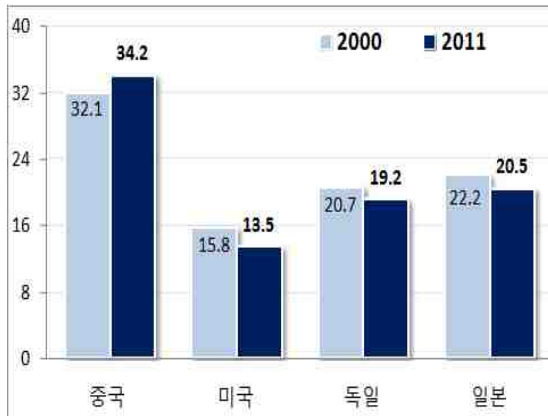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2015(E)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예측치.

② 산업 고도화 :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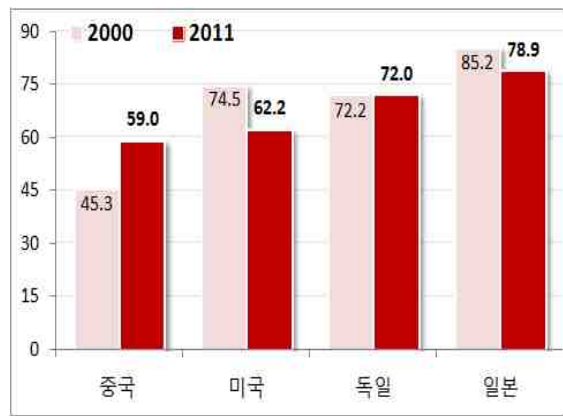
○ 최근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가 지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가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편이 가속

- 중국 제조업은 부가가치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기술 향상도 가속
 - 중국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2000년 32.1%에서 2011년 34.2%로 소폭 향상된 가운데, 독일, 일본 등 제조업 강국은 지속 감소
 - 특히, 중국은 전체 제조업 수출 중 중고기술(Medium/High Technology) 제조업 수출 비중이 2000년 45.3%에서 2011년 59.0%로 대폭 증가

< 주요국의 제조업 부가가치/GDP > (%)



< 주요국의 중고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 > (%)



자료 : UNIDO(2006,2013)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제조업 기술 분류는 SITC 2,3 단위 기준으로 자원기반(Resource-based), 저기술(Low technology), 중기술(Medium technology), 고기술(High technology)로 분류.

- 서비스 산업도 GDP 대비 비중이 제조업 비중을 초과하는 등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재편이 가속
 - 중국은 2013년부터 GDP 대비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처음으로 제조업을 추월하면서 2015년까지 GDP 대비 비중 47% 목표 달성 가능성이 확대

< 중국 산업 부가가치 비중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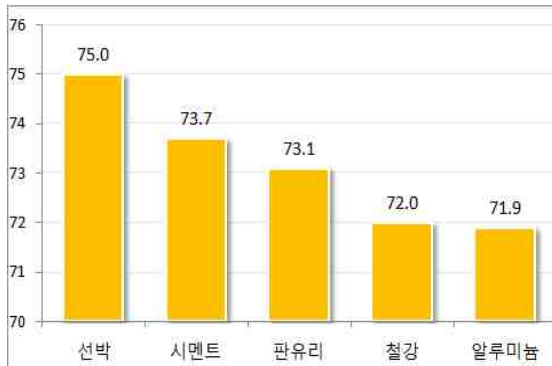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3	2014(1-9)
1차 산업	15.1	12.1	10.1	10.0	9.0
2차 산업	45.9	47.4	46.7	43.9	44.2
3차 산업	39.0	40.5	43.2	46.1	46.7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더욱이 산업 내 과잉투자 업종에 대한 구조개혁이 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정책도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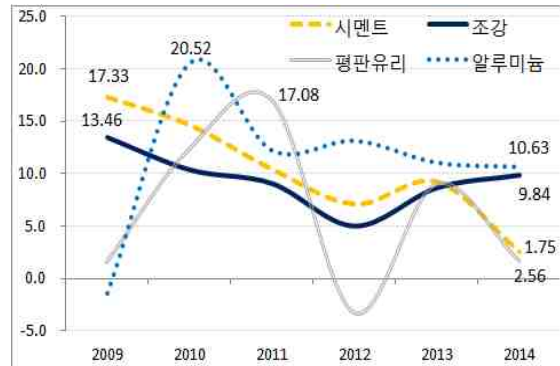
- 최근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구조개혁 강화로 관련업종의 생산증가율이 지속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냄
 - 중국 국무원은 2013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판유리 등 과잉 설비투자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
 - 2014년 조강, 시멘트 등 과잉 설비투자 품목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5.0%, 3.2% 증가하는 등 지난 2010년부터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임

< 중국의 산업별 설비가동률 현황 > (%)



자료 : 중국국무원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2012년 기준. 가동률이 낮을수록 사용하지 않는 설비가 많음을 의미.

< 주요 품목별 생산증가율 추이 > (%)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중국국무원이 과잉생산 업종 기준. 단, 선박은 제외.

- 더욱이, 신에너지 산업 등 신흥산업 육성뿐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저탄소 기술 분야 지원 등 환경 및 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가속

< 중국의 산업 구조재편 방향 >

구분	산업정책
신흥 산업	- 2020년까지 국가의 7대 전략 신흥 산업 목표 발표('12.7) - 2030년까지 신에너지, 생명과학, 우주 항공 등 7대 기초과학 분야 육성계획 발표('13.3)
산업 시설	- 2022년까지 전국 27개성의 95개 노후산업단지 재편 안 발표('13.4)
산업 재편	- 자동차, 철강, 조선, IT 등 9대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 조정안 발표('13.1) - 기계, 에너지, 석유화학, 철강, 전력 등 9대 산업 분야에 대한 구체적 재편안 제시('13.2) - 과잉생산분야 규제안 제시('13.10)
친환경 산업	- 국가중점 분야의 저탄소 기술 목록 제시('14.7) - '17년까지 친환경(신에너지) 자동차 구입세(판매가의 10%) 감면 '16년까지 관용차 비중 30% 이상 확보('14.7)

자료 : 中國國務院, 中國發展与改革委員會, 中國工業与信息化部 등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③ 금융 리스크 : 지속 확대

○ 그림자 금융이 여전히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의 불량채권 비율 증가, 중소기업의 대출 확대 지연 등 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지속

- 최근 6년간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⁴⁾는 약 10배 증가
 - 중국 그림자 금융은 중국사회과학원(2013) 추정방법에 따라 추정한 결과 2014년 현재 GDP의 약 46%인 29조 위안으로 추정됨
 - 하지만, 2013년 8월과 2014년 초 단행하고 있는 금융 규제 등으로 2014년 12월까지 신탁투자 관련 프로젝트의 누적 규모는 전년대비 2.2% 감소한 5조 8,700억에 머물면서 향후 그림자 금융 규모 축소 가능성도 상존
- 하지만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총액이 12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또 다른 금융리스크가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2014년 4/4분기 8,426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42.3% 급증
 - 이에 따라 불량채권 비율도 2011년 3/4분기 0.9%에서 2014년 4/4분기 1.25%로 지속 증가하는 등 금융리스크가 지속 확대

<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 추정 >
(조 위안) (%)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1. 그림자금융 = WMP+신탁투자자산.
2. 2014년 신탁투자자산은 11월 기준.

<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추이 >
(%) (%)



자료 : 중국은행감독위원회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주 : 불량채권은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손실(Loss) 등으로 구성.

4) 그림자 금융은 중국사회과학원이 제시한 추정방법에 따라 신탁투자자산과 자산관리상품(WMP)만을 고려할 때 추정치.

- 또한, 기업대출 중 소형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30%를 하회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이 지연
 - 2014년 3/4분기 현재, 중국 소형기업 대출규모는 14조 5,500억 위안으로 전체 기업대출규모 49조 1,554억 위안의 29.6% 수준
 - 한편, 2014년 2/4분기 현재, 기업대출 가운데 중·대형기업 대출 비중은 70.5%로 2009년 말 78.8%보다는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민간은행 설립, 예금보험제도 도입 등 금융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자은행에 대한 금융시장 규제도 완화하고 있어 금융안정성 강화 추진
 - 2013년 금융경색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은행설립을 허가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
 - 또, 2015년부터 예금보험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금융안전망 강화에도 착수
 - 더욱이 기존 외자은행의 중국시장 진입 조건을 중국내 3년 영업 기준을 1년으로 완화할 뿐 아니라, 외상독자나 중외합자은행의 중국내 지점 설립시 부여되는 조건도 폐지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을 가속

< 중국 소형기업 대출 비중 >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소형기업은 종업원 100명 미만 기업인 소미(小微)기업을 의미함.

< 중국 금융 구조조정 정책 >

구분	내용
민간금융 육성	- 민간자본의 은행설립 허가('13.7)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금융안전망 강화	- 예금보험조례 시행('15년 내 예정) · 최대 50만 위안 보장
진입 규제 완화	- 외자은행의 중국내 영업 장벽 완화('15년 1월 시행 예정) · 중국 역내 영업 년수 규정 3년 → 1년으로 완화

자료 : 中國國務院 대외 발표자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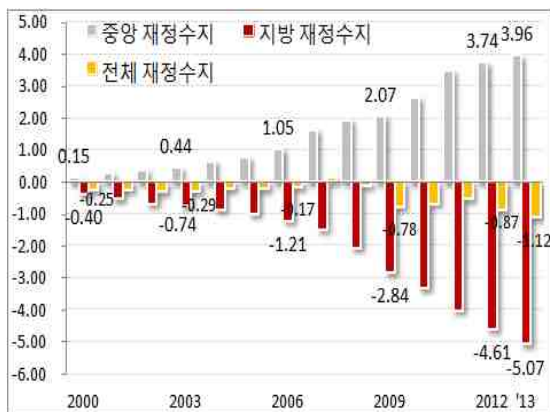
④ 지방재정 부채 : 해소 지연

○ 중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부채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재정은 지방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 전체 재정수지도 지속 악화
 - 2013년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약 6조 위안, 약 2조 위안으로 재정흑자는 약 4조 위안에 이르는 등 2000~2013년까지 흑자폭이 연평균 28.8%씩 상승
 - 반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2013년 현재 각각 약 7조 위안, 12조 위안으로 약 5조 위안의 재정적자를 기록, 2000~2013년까지 적자폭이 연평균 21.7%씩 증가
 - 이에 따라, 중국전체의 재정적자는 동기간 12.2%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1조 1,200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 2000년 2,500억 위안 적자보다 4.5배가 확대
- 지방 재정적자의 확대로 지방부채도 지속 증가
 - 중국 심계서('13.12)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부채는 2013년 6월말까지 약 18조 위안 수준으로 2010년 약 11조위안보다 7조 위안이 증가
 - IMF(2014.7)는 중국의 지방부채가 2013년 말 GDP의 39.1%인 약 21조 위안에 이르며, 2015년에는 GDP의 42.2%인 약 3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중국의 중앙·지방 재정수지 추이 >

(조 위안)



자료 : 中國財政部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재정수지 = 재정수입-재정지출.

< 중국 지방정부 부채 전망 >

(조 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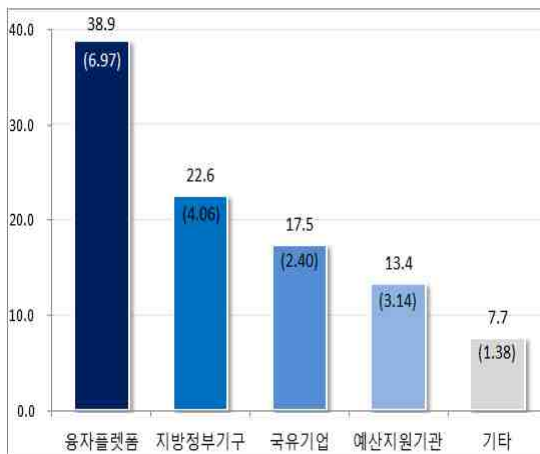
자료 : IMF(2014.7)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2015년부터 IMF의 전망치.

○ 최근 중국정부는 융자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지방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 자금조달 수단 제한 등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 지방부채는 융자플랫폼⁵⁾에 편중된 차입구조를 가짐
 - 중국 심계서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지방부채의 차입구조를 살펴보면 융자 플랫폼(LGFV,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이 전체의 38.9%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지방정부 자체 조달 22.6%, 국유기업 17.5%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자금조달 수단, 리스크 책임, 채무상환 등 3가지 측면에서 리스크 해소 방안을 제시
 - 자금조달 면에서는 융자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하되 제한된 기준 하에서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민간자본과의 합자도 허용
 - 또, 리스크 책임은 지방정부의 채무위험 평가뿐 아니라 경보시스템을 수립하여 부채관리를 진행
 - 한편, 기존 부채에 대한 채무상환은 프로젝트 자체 수입뿐 아니라, 국무원 비준을 통해 재정자금이나 지방정부 채권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

< 중국 지방부채의 차입구조 >

(%, 조 위안)



자료 : 中國審計署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2013년 6월 기준.
 2. ()는 조 위안.

< 중국 지방부채 해소 정책 >

구분	정책 내용
자금 조달	- 지방정부 채권발행 허용 - 융자플랫폼을 통한 자금조달 금지 - 민간자본과 합작 장려
채무 책임	- 지방정부의 채무위험 평가 및 경보 시스템 수립 - 은행은 지방정부 대출 손실시 자체 부담
채무 상환	- 지방채권발행, 프로젝트 수입, 정부자산 매각, 민간자본 유치 등으로 상환

자료 : 中國國務院(14.10)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주 : 지방정부의 채권발행은 중국국무원이 규정한 한도내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비준됨.

5) 지방정부 산하의 설치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우회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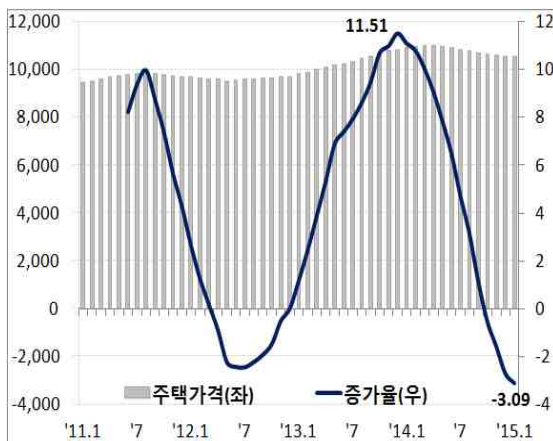
⑤ 부동산 시장 : 침체국면 지속

○ 최근 중국 주택가격이 1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택 착공 및 판매면적 증가율도 하락세 지속

- 중국 주택가격이 13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
 - 중국지수연구원(中國指數研究員)에 따르면, 2015년 1월 현재, 중국의 주요 100대 도시의 평균주택가격은 10,564위안/평방미터로 2014년 4월 11,013위안/평방미터를 기록한 후 감소세가 지속
 - 100대 도시가격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3년 12월 11.51%에서 9월 1.1%로 지속 하락하다 10월부터 마이너스 증가율로 진입
- 또한, 주거용 주택의 착공 및 판매 면적 증가율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
 - 주거용 주택의 평균 착공면적은 2014년 4/4분기 현재 전년동기대비 -17.1% 감소한 1억 1,000만 평방미터를 기록
 - 또한, 주택 판매면적도 동기간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한 약 1억 2,500만 평방미터를 기록하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

< 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가격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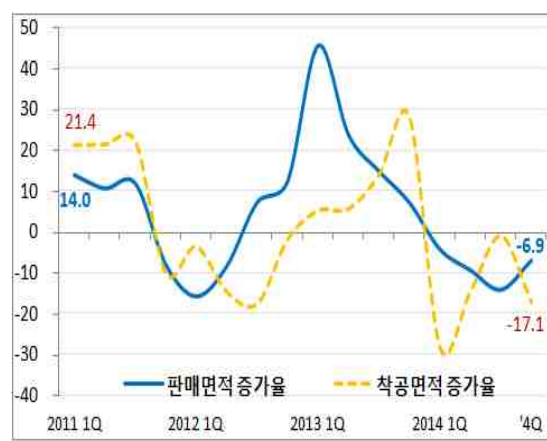
(위안/평방미터) (%)



자료 : 中國指數研究員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00대 주요 도시의 평균가격 기준.

< 중국 주거 주택 착공 · 판매면적 증가율 추이 >

(%)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분기별 평균 증가율.

○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예대 금리 인하, 주택 구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단행하고 있으나, 부양 효과는 올해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예대 기준 금리 인하 등 금융통화 정책 시행
 -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014년 11월, 기존 예대 기준금리를 3.0%, 6.0%에서 각각 0.25%p, 0.4%p 인하한 2.75%, 5.60%로 조정
 - 또한, 지급준비율도 대형은행 기준 2012년 5월 20.5%에서 20.0%로 인하한뒤 2015년 2월 33개월 만에 0.5%p로 하향조정하는 등 금융통화 완화 조치가 지속
- 더욱이 2014년 9월부터 주택구매 제한, 주택공적금 등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 규제를 완화하면서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착수
 -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구매 제한을 2014년 9월부터 46개 제한지역 중 41개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
 - 또, 2014년 10월부터는 1991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주택공적금(住宅公積金)의 금리 및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연결되도록 조치⁶⁾

< 중국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 추이 > (%)



자료 : 中國人民銀行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년 만기금리 기준.

< 최근 중국 부동산 정책 현황 > (%)

구분	주요 정책
2011	- 주택구매시 현금 보유 비중 60%로 상향 - 전국적으로 주택 구매제한 적용 - 부동산 보유세 시행(상하이, 충칭)
2013	- 양도차익 20% 부과 - 두 번째 주택구매시 현금보유 비중 70%로 상향
2014	- 생애 첫 주택구매자 지원, 금리 우대(6월) - 2011년 이후 구매 제한된 46개 도시 중 41개 도시 규제 완화(9월) - 주택공적금 규제 완화(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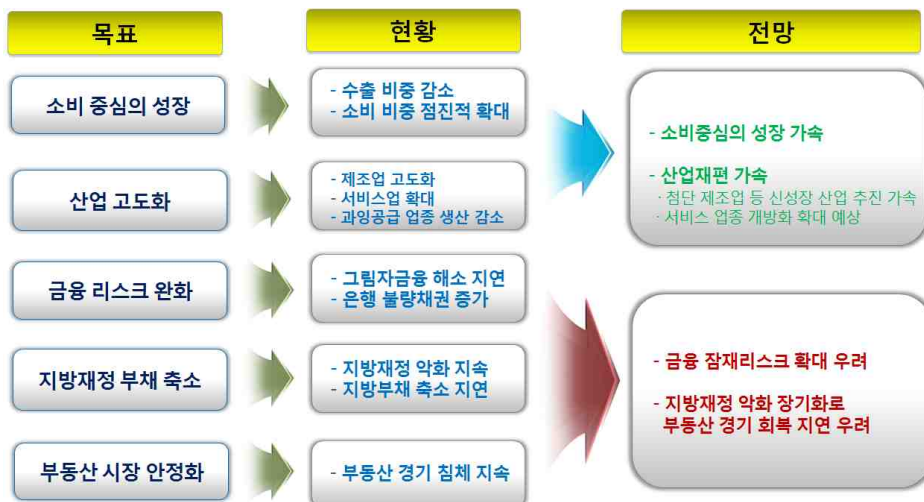
자료 : 중국국무원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정리.

6) 주택공적금(Housing Provident Fund)이란 싱가포르의 중앙공적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제도를 모델로 1991년부터 시행돼오고 있는 것으로 기업 및 개인이 주택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개인의 주택구매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를 말함.

2) 종합평가

- 최근 중국경제는 미약하나마 소비중심의 성장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은행의 부실화,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경제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면서 향후 성장둔화 지속에 따른 리스크 확대가 우려
 - 중국 경제는 소비확대 정책 지속, 과잉 공급 산업 규제 강화 등으로 구조개혁이 가속되고 있으나, 최근 경기둔화 지속에 따른 경기 하방 장기화 우려가 상존
 - 최근 점진적으로 소비중심의 성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급과잉 산업의 생산 증가율이 지속 하락하면서 중국경제의 질적인 성장변화가 가속될 전망
 - 하지만,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 가능성 상존
 - 더욱이, 은행부실 우려 확대, 지방재정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잠재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향후 성장 회복 지연이 예상됨
 - 2013년부터 신탁투자 등 그림자 금융으로 추정되는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항목이 감소하고 있으나, 유동성도 동반 축소되고 있어 향후 금융경색 재발 가능성도 상존
 - 더욱이 은행 불량채권이 증가하면 은행권 부실화가 가속되어 은행권 대출의 존도가 높은 지방부채의 확대를 야기, 부동산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음

< 양회 이후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전망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전망.

3. 시사점

- 올해 중국 양회의 정책기조를 볼 때, 향후 중국경제의 질적 변화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하되 경기둔화에 따른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 필요
 - 첫째, 구조조정으로 향상될 중국 시장의 변화에 겨냥한 對중국 수출전략 마련 필요
 - 기존 중간재 중심의 對중국 수출 패턴을 고급화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제품 경쟁력 강화 필요
 - 중국의 과잉공급 산업 규제 지속에 따른 對중국 수출 수요 감소에도 대비하여 관련 업종의 수출 경쟁력 지속 강화 방안도 모색
 - 둘째, 내수시장의 질적 확대에 따른 對중국 투자 환경에 대비해 새로운 투자 전략 마련도 모색해야 함
 - 최근 중국정부는 교통 등 기초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 및 외투자본 진출 규제를 지속 완화하고 있는 만큼, IT, 화학 등 산업의 대중국 진출 전략 마련도 필요
 -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 제조업 고부가화 등 산업고도화를 겨냥해 중국보다 기술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한 대중국 기술 협력 및 지원 방안도 모색
 - 셋째, 중국의 성장둔화에도 대비한 對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과 해외 활로 개척도 동시에 진행
 - 석유화학, IT 등 對중국 수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중앙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수출 활로 개척도 필요
 - 넷째, 중국의 금융發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 지속 강화
 - 중국 신탁업무 규제 강화 등으로 그림자 금융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한 유동성 부족 문제 등 새로운 금융 리스크 돌발에 대비 상시 모니터링 강화
 - 다섯째,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돌발 리스크 발생에 따라 국내 중국계 자본의 대규모 유출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경제연구본부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용찬 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이용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2	2.7	1.8	4.5	3.5	2.4	-2.1	4.6	5.0	2.6	3.6
유로 지역	-0.4	-0.2	0.3	0.1	0.3	0.8	0.3	0.1	0.2	-	1.2
일본	1.5	1.5	0.7	0.4	-0.4	0.1	1.4	-1.7	-0.5	-	0.6
중국	7.7	7.7	7.5	7.8	7.7	7.4	7.4	7.5	7.3	7.3	6.8

주 : 1) 2015년 전망치*는 IMF 2015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과 일본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3년말	2014년		2015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 12일	2월 26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03	2.53	2.22	1.98	2.03	0.05 %p
	엔/달러	105.04	101.44	119.46	119.12	118.85	-0.27 ¥
	달러/유로	1.3799	1.3645	1.2159	1.1405	1.1364	-0.0041 \$
	다우존스지수(p)	16,577	16,827	17,823	17,929	18,214	285 p
	닛케이지수(p)	16,291	15,162	17,451	17,930	18,786	856 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6	2.68	2.10	2.08	2.04	-0.04 %p
	원/달러(원)	1,055.4	1,011.8	1,099.3	1,096.9	1,097.2	0.3 원
	코스피지수(p)	2,011.3	2,002.2	1,915.6	1,941.6	1,993.1	51.4 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3년말	2014년		2015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 12일	2월 26일		
국제 유가	WTI	98.55	105.37	53.27	51.21	48.17	-3.04 \$
	Dubai	107.88	109.29	53.60	54.75	58.42	3.67 \$
CRB선물지수	280.17	308.94	234.05	226.66	221.50	-5.16 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